

감풍바루 근대 토속주거의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Modern Vernacular Houses in Kampong Bharu, Malaysia

김민경*

Kim, Min Kyoung

주서령**

Ju, Seo Ryeong

Abstract

In Kampong Bharu, located in the capital city of Malaysia, Kuala Lumpur, where the many valuable vernacular houses are preserved. According to the author's precedent studies (Ju et al, 2012), there are a variety of Malay housing typologies such as vernacular houses of Kampong Bharu can be classified into the traditional vernacular house I (Bumbung Panjang style), the traditional vernacular house II (Bumbung Perak style), the colonial vernacular house, and the modern vernacular house.

In this study, we focus on classification of the modern vernacular houses in Kampong Bharu, respect with space organization and elevation desig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modern vernacular houses,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unique principle of modifying process of vernacular houses in Malaysia. Derived from the process in which vernacular houses change with the influence of modernization, the modern vernacular house in Kampong Bharu is most of which were built in the 1940s to 1960s. As a consequence of research, Modern vernacular houses actively reflected the influence of modernization in the use of structure and building materials, but have maintained the traditional character in terms of spatial organization and elevation.

Keywords : Modern Vernacular House, Vernacular House, Kampong Bharu, Classification

주요어 : 근대 토속주거, 토속주거, 감풍바루, 유형 분류

I. 서론

감풍바루(Kampong Bharu)는 1899년에 형성된 말레이 인종 보호 거주지역으로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였지만 여전히 말레이인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이 보존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새로운 문화의 유입, 식민지배, 근대화의 영향에 토착화된 다양한 주거유형이 발견된다. 선행연구(Ju et al, 2012)에서는 감풍바루의 토속주거에 대해 “Traditional Vernacular House I (관장지붕형 토속주거)”, “Traditional Vernacular House II (폐락지붕형 토속주거)”, “Colonial Vernacular House(식민 토속주거)”, “Modern

Vernacular House(근대 토속주거)”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 토속주거의 근대화 특성을 추적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감풍바루 주거유형 분류의 후속연구로 근대 토속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대 토속주거는 근대화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와 건축기술 및 건축재료의 발전으로 인하여 토속주거의 근대화과정에서 파생된 유형으로써, 공간구성, 입면형태, 건축재료상 다양성이 발견되는데,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전통적 토속주거와의 차별성을 파악하고, 근대적 토속주거의 독자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근대 토속주거유형에 대한 세부적 유형분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은 M.A.S¹⁾(Malay

* 정희원(주저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사수료

** 정희원(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공학박사,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본 논문은 2012년도 경희대학교 특별교비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M.A.S.에는 토지 분할 단위로 lot. number(예: lot.124)를 사용하여 감풍바루 내 모든 lot에 건축되는 건물에 대한 도면 및 신축, 개축, 증축, 소유권이전과 같은 기록을 소장하고 있다.

Agricultural Settlement)에 소장된 감퐁바루의 주택 도면이다. 이 도면 파악 후, 현지 사례 조사를 통하여 대상 주택의 현재 실존 상황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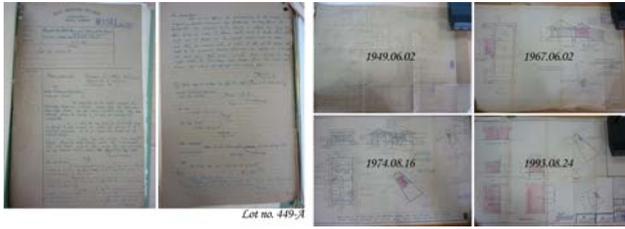


그림 1. M.A.S.의 감퐁바루 주택에 대한 기록 문서

사례 조사는 도면의 수집, 근대 토속주거에 대한 현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주민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의 수집은 2010년 2월 27일부터 4월 23일에 걸쳐 수집한 540개 도면에 대한 사진촬영과 스케치를 통해 수집하였다. 도면이 누락된 것(75개)과 주택 일부에 대한 개축 및 증축에 대한 도면만 수록하고 있는 것(209개)을 제외하여 256개 사례에 대한 유형분류가 이루어졌다. 말레이시아 토속주거에 대한 연구서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총 80개 사례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근대 토속주거의 특성을 밝히기 앞서 진행되는 세부적 유형분류로서 구조적 측면에서 유형을 분류하고, 이와 함께 각 유형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성 및 입면 특성을 파악하였다.

II. 말레이시아의 토속주거

말레이시아의 토속주거는 용도별로 분화된 각 채가 연결되는 평면을 가지고 있다. 공간 구성은 세람비(serambi; 주로 남자손님의 접대와 사회적, 종교활동 장소), 루마이부(rumah ibu; 가족의 취침, 기도, 가사일, 가족활동장소), 다푸르(dapur; 건물의 후면에 위치, 여자들의 사적공간, 부엌)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안정(anjung; 손님접대, 사교, 가족휴식공간, 현관)과 셀랑(selang; 루마이부와 다푸르를 연결하는 통로, 여자손님의 접대공간)이 더해진다. 이때, 중심건물인 루마이부의 바닥높이를 가장 높게 하여 공간의 중요성을 나타낸다³⁾.

입면은 주택의 형태, 질서 등을 인체의 질서에 근거한다는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적 철학에 근거

하고 있다. 지붕(머리), 벽(몸), 기둥(다리)의 세부분으로 분류된다(Ariffin, 2001).

먼저, 지붕은 양끝이 박공구조로 높고 가파른 경사이며, 지붕재로 아탑(attap)을 사용하는 것이 초기 방식이다. 형태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는데, 토착양식으로 긴 박공지붕인 판장지붕(Bumbung Panjang)과 외세의 영향을 받은 양식으로 맞배지붕인 페락지붕(Bumbung Perak), 모임지붕인 리마지붕(BumBung Lima), 피라미드 형태로 주택 외 모스크(mosque)나 수라우(surau, 기도실)에 사용되는 리마스지붕(Bumbung Limas)로 분류할 수 있다. 벽은 수직, 수평의 조합으로 배열된 목재 패널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세람비에는 긴 창인 전델라(jendela), 루마이부와 다푸르에는 짧은 창인 텅갑(tingkap)이 사용된다. 말레이시아의 토속주거는 고상식 주거로 기둥(tiang)은 주택의 견고성과 내구성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다. 초기에는 땅에 묻힌 형태였으나, 주춧돌(pelapik tiang)위에 기둥을 얹은 구조로 변화하였는데, 이 두 개의 요소가 기둥의 주요 구조라 할 수 있다⁴⁾.

III. 근대 토속주거의 유형

분석대상은 총 80개 사례로, M.A.S.의 기록에 의하면 1940년대(4), 1950년대(46), 1960년대(29), 1970년대(1)로 주로 1950~60년대에 신축된 주택들이다.

표1. 분석 대상 사례의 개요 (Lot.no)

유형 년대	고상식	고상식+ 지상식	지상식	다층	계
1940	449-b,504	515-a	250-a	-	4
1950	2,10,13,18,9 2-b,312-a,38 0-a,406-a-ii, 441-a,453-c, 557-a,1061- b,1109	7,33,43,54,1 13-a,113-b,1 14-a,229-b,2 33-b,270-a,3 13-a,338-b,4 03-a,407,410 -b-i,439-b,50 6,729-b,110 5	93-c,111,159 -b,217-b,274 -a,316-a,317 -b,332-a,728 -b	94-a,114-b,1 24-a,150-a,3 25-b	46
1960	20	64,269-c,318 ,323-b,328-b ,342-b,475,5 58-a,1108-a- ii	3,49,66,115- b,163-b,231- b,270-b,279- b,288-b,339- b,403-c,456- a,	29,122-a,334 -a,342-a,390 -b,429-a,110 2	29
1970	-	-	273-a	-	1
계	16	29	23	12	80

고상식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말레이시아 토속주거의 구조적 특성을 기본으로 하여 유형 분류를 한 결과를 기준으로 근대 토속주거의 유형을 분류하여보면,

2) 전문가 인터뷰는 Malay Agricultural Settlement의 honorable secretary인 Mr. Shamsuri에 의해 실시되었다.
3) 말레이시아 토속주거의 공간구성에 대한 Ariffin(2001), Chen(1998), Ju et al(2012), Lim(1987), 고영은(2010)의 분석을 종합하여 재구성하였다.

4) 말레이시아 토속주거의 입면에 대한 Ariffin(2001), Chen(1988), Ju et al(2012), Lim(1987), 고영은(2010)의 분석을 종합하여 재구성하였다.

토속주거를 따르고 있는 고상식 유형, 고상식과 지상식이 혼합된 유형, 지상식 유형, 다층 유형의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1. 고상식 유형

말레이시아의 토속주거는 고상식으로 일반적으로 루마이부의 바닥높이가 가장 높고 다푸르가 가장 낮은, 각기 다른 바닥높이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비교적 토속주거를 따르는 경우는 2사례(Lot.92-b, 1061-b)에 불과했다. 모두 단독주택으로 루마이부와 다푸르는 같은 바닥높이이며, 출입을 위한 부분만 낮게 구성된다.

고상식 유형에서는 전체 바닥이 단일한 높이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유형은 건물 외벽을 세운 후 내벽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근대적 건축기술이 사용된 것으로, 토속적인 건축수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바닥높이를 각기 다르게 하는 구법보다 기술적으로 비교적 쉬운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때 공간별로 별도의 지붕을 구성하거나, 안정부분을 돌출되게 표현하여 토속주거와 입면상의 공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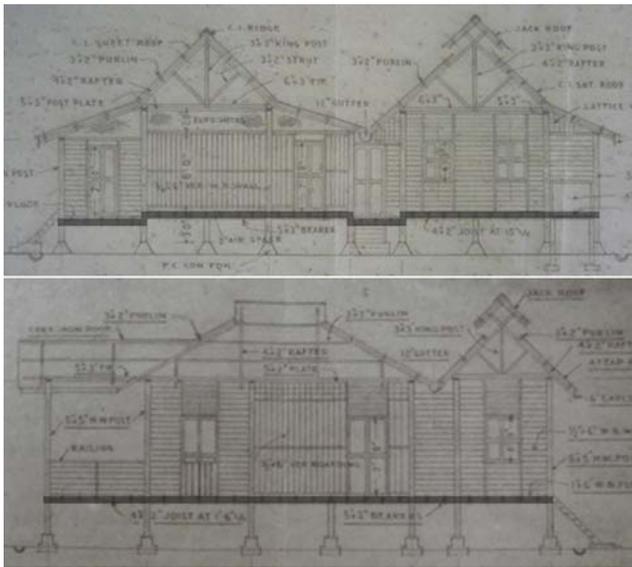


그림 2. 고상식 유형의 사례

공간 구성방식은 2사례(lot.312-a, 1061-b)를 제외하고 대부분 안정-세람비-루마이부-다푸르의 토속주거의 공간 위계 방식을 따르고 있다. 공동주택으로 구성되는 사례(lot.312-a, 504, 1109)도 발견되었는데, 같은 바닥높이로 구성된 유형에서만 발견된다.

박공지붕형과 판장지붕형의 경우 각 유닛이 동일한 평면으로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평면의 경우 전체를 임대로 사용하여 소득을 내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한다. 반면, 페락지붕형은 전면

부와 후면부가 각기 다른 평면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 소유주의 영역이 전면부에 위치하며 보다 넓은 반면 임대 영역은 후면에 간소한 평면으로 구성되어 영역이 뚜렷하게 구별된다.

주요공간인 루마이부의 지붕은 페락(7사례), 판장(5사례), 판장지붕이 간소화된 형태인 박공(4사례)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붕재는 아연과 골합석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토속주거에서는 야생 야자 잎을 엮어 지붕재로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를 아탑(attap)이라고 칭한다.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박공지붕형(lot.2, 449-b, 1061-b)에서만 아탑을 지붕재로 사용하였고, 페락지붕 중 공동주택인 1사례(lot.504)만 타일이 사용되었다. 토속주거는 공간별로 별도의 지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판장지붕으로만 구성된 사례(lot.406-a-ii)가 나타나기도 했다.

모든 사례가 토속방식에 따른 목재 패널벽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콘크리트 기둥을 사용한 2사례(lot.13, 20)를 제외하고 모두 토속방식에 따른 경목재(hard wood)를 기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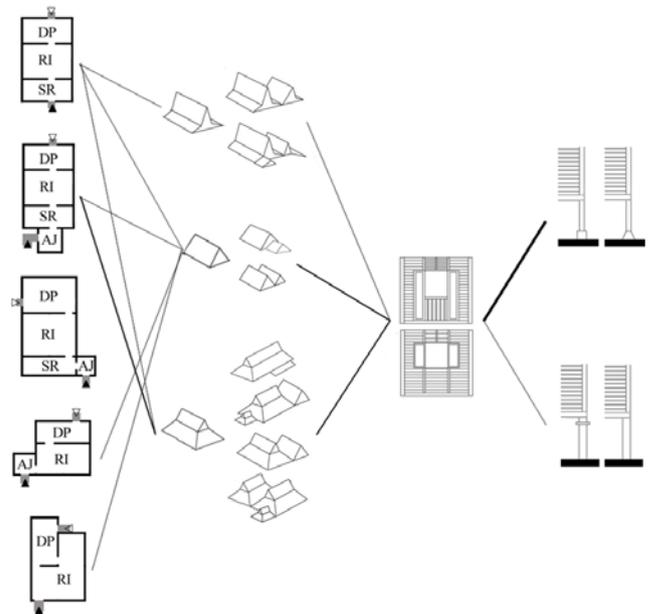


그림 3. 고상식 유형의 건축요소간 관계도

2. 고상식과 지상식 혼합 유형

가장 두드러지는 경향은 주택의 스타일에 관계없이 루마이부와 루마이부 전면부에 배치되는 안정 및 세람비는 고상식을 유지하되, 다푸르를 지상식으로 건축하는 고상식과 지상식의 혼합 유형이다.

이 유형 역시 공간구성은 대체로 토속주거의 방식이 고수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2사례(lot.232-b, 342-b)만 예외적인데, 루마이부와 다푸르로만 구성되며 모두 박공지붕형에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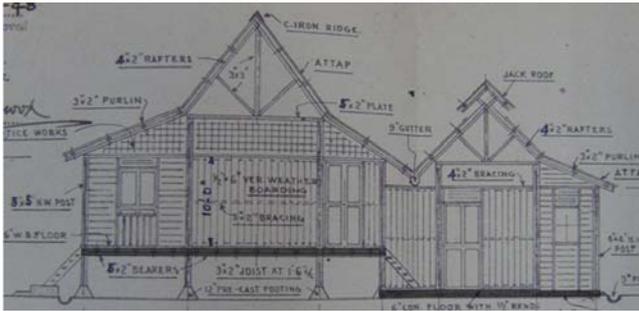


그림 4. 고상식과 지상식 혼합 유형의 사례

지붕은 페락(13사례), 판장(7사례), 박공(7사례), 리마(2사례)의 순으로 나타나며, 재봉재로 아연과 골합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유형에서는 알루미늄시트 (lot.233-b, 338-b), 석면 (lot.318), 타일 (lot.7, 64, 113-a) 과 같이 다양한 지붕재의 사용이 파악된다. 아담은 판장 (lot.229-b, 407, 729-b)과 박공지붕 (lot.515-a)에서만 사용되며, 타일 (lot.7, 64, 113-a)은 페락지붕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공동주택은 페락(2사례), 판장(3사례), 박공(5사례)로 공동주택의 경우 비교적 간소한 형태인 박공지붕이 좀 더 선호되고 있다. 또한, 지붕의 형태에 따라 임대 영역의 구성방식의 차이가 발견되는 점은 앞서 살펴본 고상식 유형과 동일하다.

다푸르의 벽을 제외하고 모두 토속방식의 목재패널로 구성된다. 다푸르의 벽은 하부 즉 지면과 닿는 부분을 일부만 근대적 건축재인 콘크리트 또는 벽돌벽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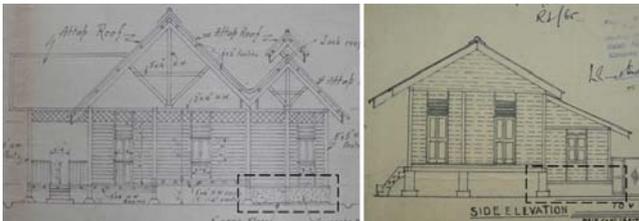


그림 5. 지면과 닿는 벽 일부의 콘크리트 사용 사례

창문의 형태는 주로 토속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페락지붕형에서 덧창에 유리를 끼운 사례 (lot.318, 1105)가 나타나기도 한다. 페락지붕형에서는 콘크리트 기둥(10사례)을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다른 지붕형에서는 각 한 사례씩의 사용이 파악된다. 고상식 유형에 비해 콘크리트 기둥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할 수 있다.

다푸르만 지상식으로 구성하는 것은 다푸르의 바닥 높이가 가장 낮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관습의 영향도 있지만, 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장을 싸온 물건을 부엌으로 옮기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라 한다. 건축재 및 기술의 발달과 함께 주민의 생활 편의가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 유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는 좀 더 넓은 공간의 필요에 의해 증축행위를 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신축 주택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유사 이웃주택의 영향에 의한 것임이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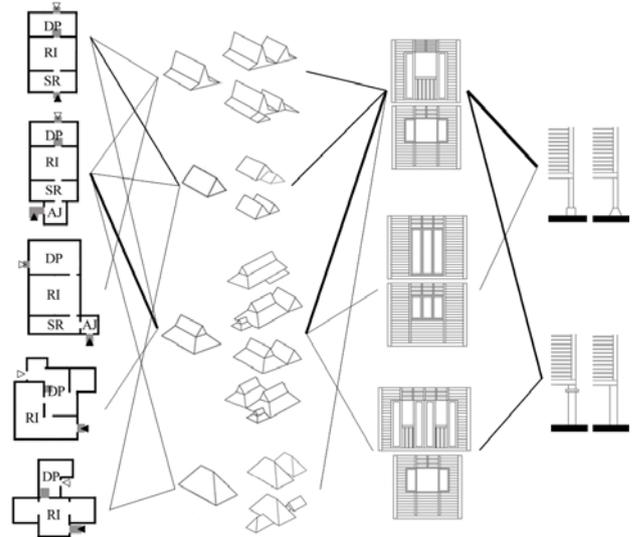


그림 6. 고상식과 지상식 혼합 유형의 건축요소간 관계도

3. 지상식 유형

지상식 유형은 고상식과 지상식 혼합 유형과 함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공간구성 및 입면상 토속주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지상식 구조로 지어진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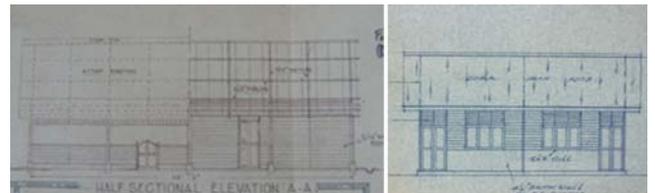


그림 7. 지상식 유형의 사례

대체로 토속주거의 공간구성을 따르고 있으며, 상기 유형에서도 나타난 루마이부와 다푸르로만 구성된 평면(8사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유형은 총 23사례 중 17사례가 공동주택이다. 다른 유형에서는 루마이부 및 다푸르 내에서 침실과 거실의 분리 및 부엌과 식당의 분리와 같은 용도에 따른 공간의 분화가 보편적이거나, 이 유형은 반대로 세랍비-루마이부(침실)-다푸르(부엌)으로만 구성된 간소한 평면이 보편적이다.

지붕의 형태에서도 간소화 경향이 파악되는데, 다른 유형과 달리 박공지붕(16사례)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붕의 형태는 판장(4사례), 페락(2사례), 리마(1 사례)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판장지붕에서만 아탑(3 사례)의 사용이 파악되며, 다른 유형과 같이 주로 아연과 골합석의 사용이 보편적이다. 이와 함께 박공지붕에 타일(1사례), 석면이 사용되며 3사례에 불과하지만 아텍스(ardex sheet)의 사용이 나타난다.

목재패널을 벽재로 사용하지만 창문 아래부터는 벽돌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예외적인 사례도 나타나는데, 판장지붕형에서만 지상식임에도 전체 벽을 목재 패널로 구성(2사례)한 경우가 나타난다. 이러한 주택의 경우 고상식이 아닐뿐이지 토속주거의 입면적 특성이 그대로 고수되어 나타난다.

창문은 토속방식을 따르는 것이 보편적이며, 다른 유형에 비해 창의 면적이 넓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2사례에 불과하지만 루버창이 사용되고 있음이 파악된다.

지상식으로 건축하는 것은 근대적 건축재의 활용 및 수도시설 및 하수처리 시설 발달과 관계가 있다. 빗물의 빠른 배수를 위하여 처마라인을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여 더 이상 침수 피해가 없고,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지면을 다진 후 주택을 올리는 건축방식으로 지상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콘크리트 기단이 있지만 고온 다습한 말레이시아의 기후 상 습기에 대한 목재벽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벽의 하부에는 콘크리트 또는 벽돌을 사용하지만 상부는 토속방식을 고수하며 목재패널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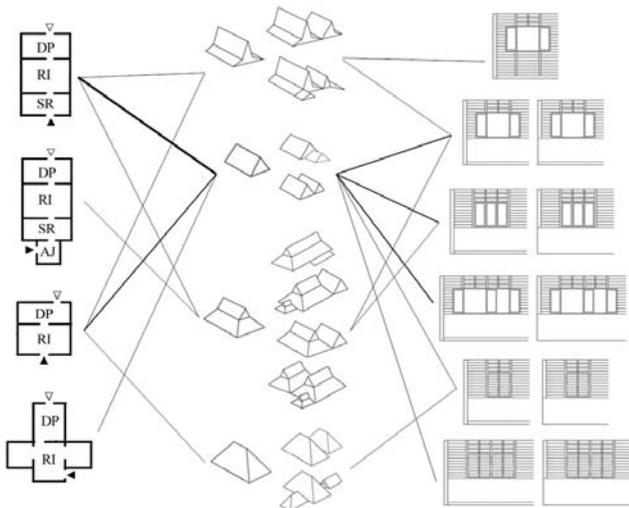


그림 8. 지상식 유형의 건축요소간 관계도

4. 다층 유형

말레이시아의 토속주거는 단층으로 구성되지만, 이 유형은 2층으로 구성된 사례에 대한 것이다. 다층 유형은 2층으로 구성되고, 입면상 방갈로와 유사한 점이 있어 식민 토속주거에 속할 수 있지만, 공간구성 및

입면상 토속적인 속성을 내재하고 있어 근대 토속주거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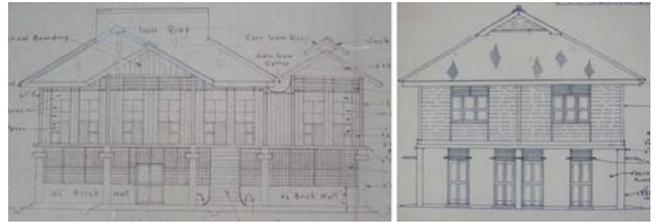


그림 9. 다층 유형의 사례

다층 유형은 크게 전층을 모두 한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과 건축 당초부터 임대를 위하여 만들어진 공동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임대를 위하여 만들어진 경우는 동일 평면이 나열되어 구성되며, 한 가족을 위한 주택의 경우는 다푸르를 1층에 배치되어 주로 취침, 독서, 가족거실로 사용되는 2층과 분리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가족을 위한 주택에서는 주택 내부에 하나 이상의 층간 이동을 위한 계단이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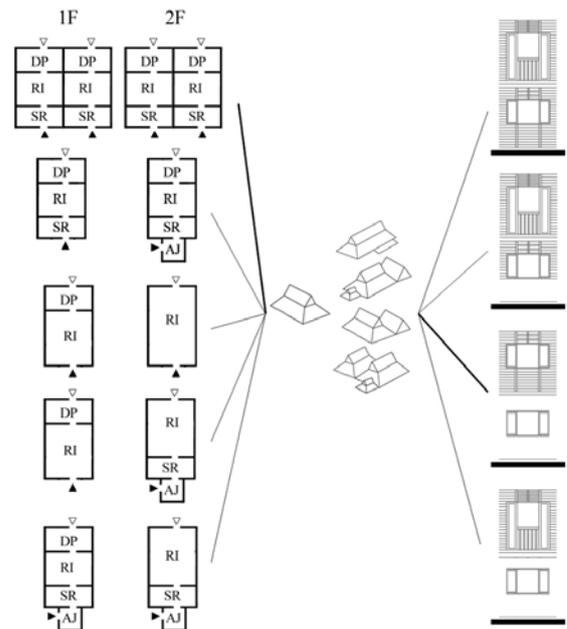


그림 10. 다층 유형의 건축요소간 관계도

모두 토속적 공간구성 방식이 고수되고 있으며, 이 유형의 경우 모두 페락지붕인 것이 특징이다. 지붕의 재료는 아연 및 골합석(7사례), 석면(2사례), 타일(2사례), 아텍스(1사례)의 순으로 나타났다.

1층은 높은 콘크리트 기둥에 벽을 세웠고, 2층은 토속적 입면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1층 벽은 지상식 유형과 같이 벽의 하부만 벽돌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방식과 1층 전체 벽을 별돌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반면 전체층의 벽이 목재 패널로 구성된 사례(lot.325-b)가 나타나기도 했다.

V. 결론

본 연구는 갑퐁바루의 근대 토속주거에 대한 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로써, 말레이시아 토속주거의 근대화 특성을 밝히기 앞서 선행된 연구이다.

갑퐁바루의 근대 토속주거는 주로 1950~60년대에 신축된 것으로, 구조적 측면에서의 유형분류와 공간구성 및 입면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근대 토속주거는 토속주거의 속성을 고수하고 있는 ‘고상식 유형’, 주택의 전면부는 고상식이 되 일부 공간만 지상식으로 구성하는 ‘고상식과 지상식 혼합 유형’, ‘지상식 유형’, ‘다층 유형’의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등장은 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의 발달과 근대적 건축재료의 도입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유형에서 토속주거의 공간배치 위계가 고수되고 있다. 또한, 임대 소득 발생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이 나타난다. 토속 지붕인 판장과 식민지 시대 네덜란드와 영국의 영향으로 나타난 페락지붕이 주로 사용되며, 페락지붕의 사용이 보다 두드러진다. 벽은 고상식 유형만 목재 패널로 구성된다. 벽과 기둥은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상식으로 건축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벽돌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연구의 결과 구조와 건축재료의 사용은 근대적 영향을 적극 수용하였지만, 공간구성의 위계와 입면에 있어서는 전통성이 고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유형분류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어 아직 공간구성 및 입면적 특성을 명확히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 후속 연구로써 근대 토속주거의 공간구성 및 입면적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연구를 통해 말레이시아 토속주거의 근대화 특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완성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고영은 (2010). 말레이시아 전통주택 입면요소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주서령 · 김민경 (2010). 동남아시아 토속주거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6), 19-29.
3. Ariffin, S. I. (2001). Order in Traditional Malay House Form. Oxford Brookes University. Doctor of Philosophy. Dissertation.
4. Chen, V. F. (1998). *The Encyclopedia of Malaysia*

- Vol. 5: Architecture*. Singapore: Archipelago Press.
5. Ju, S. R. and Kim, M. K. (2011). A Study of Modern Vernacular Houses in Kampong Bharu, Malaysia. *mAAN Seoul 2011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pp.89-101.
6. Ju, S. R. and Saari, B. O. (2010). A Typology of Modern Housing in Malaysi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11(1). pp.109-119.
7. Ju, S. R. and Saari, B. O. and Ko, Y. E. (2012). Modernization of the Vernacular Malay House in Kampong Bharu, Kuala Lumpur.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11(1). pp.95-102.
8. Lim, J. Y. (1987) The Malay House: Rediscovering Malaysia's Indigenous Shelter System. Malaysia: Institut Masyarakat.
9. Nasir, A. H.(1997). The Traditional Malay house. Malaysia: Kim Hup Lee Printing Co. Pte. Ltd.